

택시被拉 여학생의 下車 요구 거절

“性폭행 방조” 운전사 구속

【全州 金富坤기자】대인재

수여학생이 재수 남학생들에게 유인돼 택시에 태워져 끌려가며, 택시운전사에게 내려줄 것을 애원했으나, 택시운전사가 이를 거절하며 운행을 계속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8일 군산소 교통 소속 택시운전사(徐永昌씨, 39·군산시 구암동 609)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금)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徐씨는 지난 6일 밤 10시 30분쯤 시내 중앙로 2가 한일은행 군산지점 앞길에서 차모(18·김제시 신동동·구속중) 등 대인재 수생 2명으로부터 김제까지 8천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유인한 같은 학원 재수생 李모(18·군산시 삼학동 등 3명)를 택시에 태웠다는 것.

李씨는 택시가 자기 집 앞인 이리방면으로 가자 운전사에게 돌아온 후 자살을 기도했다.

사인徐씨에게 운전사“아저씨는 나 같은 말도 없나”며 내려줄 것을 애원했으나 운전사徐씨는“나같은 말도 없고 운전해 방해된다며李씨의 신변에 위협이 있는줄 알면서도 시속 80km의 속도로 택시를 몰아 김제군 성덕로 모라리 부근 도로에 이를 때까지 계속 운전했다.”

경찰조사결과李씨는 이날 차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집

단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교습主婦 性폭행

두명은 학원강사 令狀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운전교습을 받던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고 이를 미끼로 돈을 뜯은 혐의로 서울 서초동 한미자동차학원강사 李相涉씨(41·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는 지난 7월15일 자 방음리운 뒤편(36·주부)의 학원에 도로운전연수를 받던 중 운전연수를 시켜주

강도 31차례·15명 强姦

10대 적지 出所 후 4개월 동안

서울 용산 경찰서는 18일 용산소치구 일대에서 4개월 동안 31차례에 걸쳐 강도를 하고 15명의 부녀자를 강간, 추행한 혐의로(문·17·

제주시귀포시서흥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은 지난 8월 오전 3시쯤 서울용산구 금모씨(25·여)집에 부엌침실을 때려내고 들어가 미화 2백50달러 등 4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뒤

문은 또 지난 10월 오전 3시쯤 용산구 정모씨(48·여)집에 칼을 들고 들어가 건넌방에서 자고있던 정씨의 딸(金모양, 23) 등 세자매를 칼로 위협, 추행한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문은 지난 8월20일 금모

졌다”며 충남천원군 독립기념관으로 데리고가 술을 마시게 하위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李씨는 또 독립기념관에서 자신이 뒤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미끼로 남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뒤편을 밖으로 불러내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1백30만원을 뜯어왔다고 경찰은 말했다.

李씨는 사진을 미끼로 두 달 동안 뒤편을 협박해오다 이를 견디다 못한 뒤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씨(24)집에 들어가 강간한뒤 6일후인 26일밤 10시쯤 또다시 김씨집에 달을 넣어 들어갔다. 달아나는 등 한전에 두차례나 들어가 범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조. 90.10.19